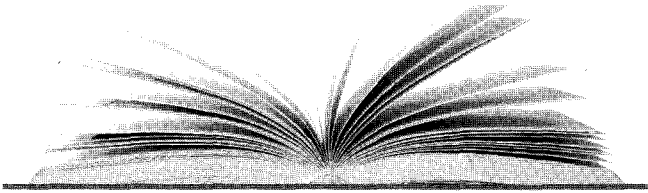


우리나라 IT(정보기술)산업은 자고 일어나면 사양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스플레이, 휴대폰, 온라인게임, 인터넷 등은 세계 최강 수준에 올라있다. 자원은 빈약하나 변화에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쌓아온 기술력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즉, 적절한 시장 여건에 맞는 변화와 함께 그 변화에 잘 적응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생물학자 찰스 다윈도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설명했다.

농장도 시장 변화에 적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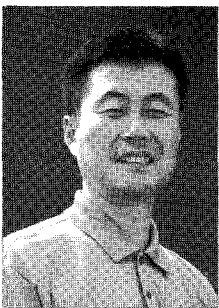


이제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상품은 우리나라 업체가 항상 최신품을 내놓고 있다. 자동차, 조선, 휴대폰과 결합된 IT분야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어 향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입지도도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여러 곳과 자

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해나가고 있어 우리 농업 부문보다 위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에 비해 우리 육계산업은 과거보다 변화는 되었으나 그 변화에 적응은 잘 하지 못한 것 같다. 보온덮개 하우스식 계사가 무창계사로, 경험 보다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바뀌어 양적 팽창에 맞는 질적 관리체계가 요구되나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생산성은 아직도 국제 경쟁력을 논할 때면 늘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브로일러는 육종회사를 통해 해가 거듭될수록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최근 육용계 육종회사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 표를 보면 육계의 성장능력이 내년에는 1995년에 비해 같은 생체중 2kg에 도달하는데 15일이나 단축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육계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15년 만에 약 32%의 증체를 개선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상배 이사
(주)삼화육종

※육용계의 개량(로스기준)

2kg 도달일령	1995년 48일령, 2000년 43일령, 2005년 38일령, 2010년 33일령(?), 매 1년에 1일 정도 단축되고 있다.
선발의 기준	1960년대 체중 1970년대 체중, 산란, 사료요구율 1980년대 체중, 산란, 사료요구율, 부화율, 고기생산율 2008년대 체중, 산란, 사료요구율, 부화율, 수율, 가슴살, 고기질, 면역반응, 골격과 심장 발달 2018년 기준 + ???

국내 닭고기 시장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우선 가슴육 소비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대접을 받았던 닭고기 가슴육이 날개 돌친 듯이 소비된다고 하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육계의 선발 기준과 육종의 방향도 다양화됨으로써 육종회사에서 디자인된 닭에 환경을 맞추어주는 사양관리가 필요한 데에도 아직 많은 농가들은 여기에 맞는 사양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농장마다 관리 방법이나 응용력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근본은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벗어나는 사양관리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개인적으로는 소득을 높일 수 없고, 국가적으로는 자원낭비라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육종회사들은 브로일러 육종시 이에 적합한 다양한 새로운 사양

관리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지만 농장에서는 새롭게 개량된 닭에 맞는 사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우리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변화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농장들도 많은 실정이다. 과거로부터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고집하여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끝내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은 알고 있으나 실천할 여건이 안 되어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농가의 영세성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생산성 향상을 이루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은 점은 범 업계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미 대부분의 종계농가나 육계농가들은 계열사와 계약 하에 생산성 향상을 꾀함으로써 이익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성이 떨어져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점점 도태되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과거에는 다소 생산성이 낮아도 시세가 좋으면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었다. 이제는 단순히 사료나 급이하면서 닭을 키운다는 생각은 버리고 육종된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는 물론 사육여건에 이르기까지 세계화 시대에 맞는 변화에 적응하는 농장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닭은 변화한다는 것을 농가들은 항상 생각했으면 한다. <<